

목포권

“녹지 342만평에 상주인구 16만”

■ 무안기업도시 주민설명회

무안읍과 청계·망운·현경면 일대 1천210만평(40km)에 들어설 무안기업도시 상주인구 16만명에 환상의 녹지체계를 갖춘 생태첨단도시로 조성된다.

무안군은 지난 24일 무안을 습담문화예술회관에서 ‘동북아 물류·교역의 중심 도시건설 무안기업도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개발내용을 소개했다.

오는 2011년까지 조성될 무안기업도시에는 한국제철산업단지, IT·BT 등 국내외 첨단기업을 포함하는 첨단기술산업단지, 한국·중국·싱가포르

청계·망운·현경면 1,210만평에 2011년까지 기업·주거용지 조성 항공물류센터·중민속촌 들어서

르 등의 대형 항공물류업체들이 입주하는 항공물류산업단지, 통합의화산산업단지 등 다수 기업이 들어선다.

또 유동인구는 27만명에 상주인구가 16만명에 이르며 주거와 상업, 교육, 유틀을 위한 시설 및 중국 소수민족 민속촌 등이 조성된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간선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며 180만평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창조호와 기존 수림대를 활용한 중앙공원 조성 등 광역녹지축이 도시를 감싸는 환상의 녹지체계를 갖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안기업도시는 전체 부지 1천210만평 가운데 산업용지 250만평, 주거용지 148만평, 상업업무용지 59만평, 유틀시설 용지 19만평, 생태공원 및 녹지 342만평, 공공편익시설 303만평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해 무안기업도시개발부와 한국제철산업 단지가개발부 등 2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데 이어 오는 8월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



발계획 신청, 10월 개발구역내 토지매수, 2007년 6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9월 착공, 2001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날 “무안기업도시는 한국제철산업단지와 항공물류단지 등 각종 제조산업과 수출주력산업이 배치되며 푸른 도시환경과 산업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생태 첨단도시로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지역 단신/

무안군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

무안군이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에 공개 채용하게 될 인원은 무안읍 2명, 봉탄, 망운, 해계면 각 1명 등 모두 5명. 그동안 무안군은 미화원 결원이 발생될 경우 읍면장 추천 등을 거쳐 채용해왔으나 민선 4기 들어 깨끗한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무안군청 자연환경과(450-5697)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는 8월 1일까지. 환경미화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읍·면 주민등록 거주 자로서 만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검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8월 23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소방서 상반기 187명 구조

목포소방서가 올 상반기 동안 492건의 구조구급 신고를 받아 250건을 처리, 187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경우 처리 건수는 구조인원은 13.3%(22명)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급출동은 3천925건에 4천70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해 작년 상반기 3천741건에 3천941명과 비교해 약 4%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출동의 경우 교통사고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계사고 47명, 화재현장, 산악사고 등 순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급출동은 각종 급·만성질환 환자가 2천 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포소방서관계자는 “구조구급 출동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고예방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출동과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서남권 ‘조선 클러스터’ 육성 탄력

목포시-목포대-목포해양대-중소기업청 업무 협약

목포시와 목포대, 목포해양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서남권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들 기관은 26일 목포해양대 해양실습선인 새누리 선상에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내실있는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 중형조선 및 기자재 특성화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목포해양대 등 대학은 조선관련 연구센터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체 보유한 시험, 연구 장비를 개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정보, 인력교육 및 학술정보 교류 등에 나선다.

또 목포시 등 기관은 중·소형 조선업체 후견인제 지원 등 집중관리를 비롯해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조선업 지원거점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구축, 조선업 생산공정 개선 및 부품 품

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추진한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 내 선박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등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권은 현대삼호중공업 외에 중형조선소 3개의 부품, 기자재업체 30여 개가 유지되는 등 중·소형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이상규기자 silee@

더 빨라진 해상인명구조

목포해경 파출소 4곳 고속제트보트 배치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4개 파·출장소에 새로 건조된 고속제트 보트(사진)가 배치됐다. 이번에 배치된 고속제트 보트는 워터재 추진방식으로 최대속력 45노트(시속 90km)에 최대 8명까지 승선 가능하다. 고속제트 배치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인명구조 활동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본부장은 “해상레저 성수기철에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이 안전하게 각종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연안구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연안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바다만들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신나는 함정체험 목포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목포해경 1500톤급 대형경비함정에서 방학을 맞아 여름해양 학교에 참가한 한국해양소년단 어린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 체험 행사를 가졌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population, area, and other statistic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2V,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 like 김성철 and 김수현.

Advertisement for J2V medical services, highlighting their 99.9% success rate and 30-day return policy. Includes a photo of a doctor and contact details for J2V Medical.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주)' (Hanil Jido Co., Ltd.), featuring a 2006 map of Gwangju and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